

# 비츠로테크, 전기설계·시공분야 동산엔지니어링 전격 인수

전력기기 제조기술+엔지니어링 역량, 해외시장 공략 '청신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도시철도사업 등 해외진출 확대 박차

국내 중견분야 대표 중견기업인 비츠로테크가 엔지니어링 기업인 동산엔지니어링을 전격 인수키로 했다. 비츠로테크(대표이사 유병연)는 최근 이 같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철도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인수가 자사의 우수한 제조기술에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 향후 철도사업 등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비츠로테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설립돼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동산엔지니어링은 전기 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온 국내 선두업체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업관리(PM), 시스템엔지니어링(SE) 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터널, 교량, 철도 분야의 사업개발,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운영 등에 강점이 있으며, 전기철도, 도로, 터널 정장교, 플랫폼 설비 등에 특화됐다. 덕분에 지난 2014년에는 코트디부아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설계계약을 체결,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 사업은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수도인 아비장에서 와가두구를 잇는 화물열차 노선 1156km 구간 가운데 아비장 시내를 관통하는 37km 구간을 개량, 전철

화 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아비장 시내 대중교통의 중심이 될 승객전용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017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준공될 예정이다. 비츠로테크는 이번 동산엔지니어링 인수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병연 비츠로테크 대표이사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도시철도사업 일환으로 전기부분의 변전, 배전 및 SCADA 기자재를 공급·설치하게 되면서 비츠로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대내·외에 선보이고, 세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또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일 기자 y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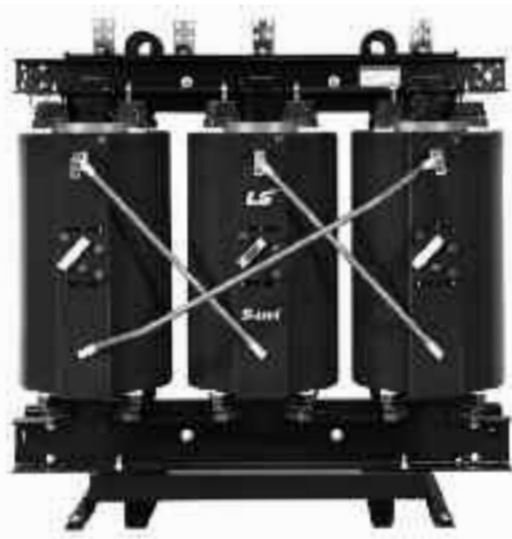
## LS산전, 내진형 몰드변압기 출시

규모 8.0 지진에도 '고떡없다'...지진 특화 설계

지난해 9월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경주 지진(규모 5.8) 이후 지진으로 인한 전력설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S산전은 15일 리허트 8.0 규모(진도 10, 최대지반가속도 기준 0.6g 이상)의 거대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국내 최고 내진성능을 확보한 내진형 몰드변압기(Cast Resin Transformer)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된 내진형 'Susol' 신제품은 지진 특화 설계를 통해 몰드변압기 고정 구조물의 응력(변형률)을 획기적으로 보강, 국제건축가회의 제정 빌딩코드인 UBC(Uniform Building Code) 구역 존(Zone) 4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강진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UBC 존에 속한다. LS산전은 지난해 3월 제품개발에 착수해 8월 지진방재연구센터를 통해 내진성능 공식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개발 시작 1년 만인 올 3월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번 신제품은 내외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몰드변압기와 크기가 같아 변압기 교체 시 외함을 변경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이다. 내진 성능은 강화하면서도 추가 공간 문제는 물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 그동안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내진 전력설비 수요가 확대돼왔으나 일부 글로벌 기업들만이 내진형 변압기 시장을 주도해왔다. LS산전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내진형 변압기 시장 공략에 나서 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표를 던지겠다는 각오다.

송세준 기자 21ssj@



## 우리아엔엘, 색재현율·광효율 높은 LED패키지 본격 '양산'

모바일 분야 첫 0.3T두께 초박형 LED패키지 2분기부터 출시 예정

우리아엔엘(대표 김병수)은 색재현율과 광효율이 향상된 신규 LED패키지를 개발해 2분기부터 본격 양산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에 성공한 신규 솔루션 'UCCP(Ultra Color Coverable PKG)'는 퀀텀닷과 동등한 고색재현율과 광효율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주력사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규 광원으로 채택되고 있는 OLED와 퀀텀닷(QLED)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슬림화 추세에 맞춰 지난해 세계 최초로 0.3T두께에

0.55mm넓이의 초박형 LED패키지를 출시, 올 하반기 출시되는 국내의 스마트폰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50인치 이상 하이엔드 TV분야에서는 기존대비 10%이상 칩크기를 줄여 높은 가격경쟁력을 구현한 칩스케일 패키지(CSP) LED개발을 완료해 현재 국내 고객사에 공급 중이며 올 상반기부터 해외 고객사에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2분기까지 생산능력을 확충해 최근 대형패널에 확대 채용되는 칩스케일 패키지(CSP)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우리아엔엘은 2015년부터 중국 양저우

범인에 CSP 생산설비를 구축, 국내외 고객이 요구하는 공급망 관리와 함께 현지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왔다. 조명분야에서는 지난 연말 중국 사천성에 설치된 AC가로등을 시작으로 AC 직결 고효율 LED제품을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시광의 영역인 UV LED와 IR LED 신제품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퀀텀닷과 마이크로 LED모듈 관련 시제품들도 출시해 차세대 광원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우리아엔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문별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과 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교 기자

## 테크엔, 대구국가산업단지 '첫발'

신규 생산공장 준공식·태양광 발전시설 등 갖춘 친환경 녹색공장 입주 1호 기업으로 기술·품질 중심 국내 대표 조명업체로 성장 다짐

LED 조명전문 테크엔(대표 이영섭)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을 착공한 지 10개월 만에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다. 16일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서 김문오 달성군수와 이영섭 대표 등 경제계 인사 및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엔 LED조명 생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테크엔의 생산공장은 부지면적 1만 377㎡에 제조시설 9032㎡, 부대시설 4068㎡ 규모로 조성돼 하루에 LED 가로등·조명등 2000개, 자동차용 LED 자동전조등 1만5000개까지 생산 가능하다. 이 공장은 태양광 발전시설(450kWh),

신재생 발전 및 ESS 시스템(150kWh)과 우수처리 재활용시설(300t)을 구비해 공장 가동 후 남은 전기에너지(300kWh)를 한전에 다시 판매하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녹색공장이다. 주요 생산설비로는 자동조명특성 검사장비와 자동 에이징설비, 자동열전도핀 삽입기, SMD설비를 갖추고 있다. 생산 시설 내에는 시제품실과 적분구실, 배광시험실, 연구실 3동 등 독자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와 체육단련실, 휴게실 등을 마련했다. 이영섭 대표는 "테크엔은 설립 4년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후 특

허 기술과 제품으로 국내 조명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기업"이라며 "대구국가산업 1호 입주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술과 품질 중심의 국내 대표 조명 업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크엔은 2009년 5월 설립 이후 열전도 핀 삽입형 방열기술을 독자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LED조명 전문 기업이다. LED가로등 고효율과 신기술(NET)인증, 녹색기술인증 자가품질보증 등을 획득해 국내 조명시장을 공략해 왔다.

대구=김승교 기자 kims@



16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열린 테크엔 LED조명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이영섭 대표(사진 왼쪽 여덟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에머슨, 美 마이크로그리드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

글로벌 공정자동화 전문기업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톤 에지 농장(Stone Edge Farm)에서 태양열, 풍력, 수송동력, 첨단 축산지 등 다양한 전력원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에머슨은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스톤 에지 농장 마이크로그리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독립성 제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스톤 에지 농장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끌어올 수 있으며, 초과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2014년 캘리포니아 북부 지진 등 사고 발생 시 전력망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연결을 해제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에머슨 관계자는 "에머슨의 전문성과 기술은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며, 에너지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ube@

## 보승전기, 당진농공단지로 본사·공장 '이전'

LED조명업체 보승전기(대표 이형곤)가 본사와 공장을 충남 당진농공단지로 이전한다. 당진시는 김홍장 시장과 이형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이전 및 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승전기는 3년간 90억 원을 투자, 당진시 시곡동 당진농공단지 내 옛 두영전자 부지에 건물면적 2만3238㎡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예정 인원이 150여명에 달해 지역 고용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는 기업 이전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과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보승전기는 한국 본사(인천광역시 남구)와 공장이 있고 베트남 현지에도 공장을 둔 LED 조명등기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은 약 45억 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열린 제5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교 기자



14일 당진 시청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가운데 왼쪽)과 이형곤 보승전기 대표(가운데 오른쪽)가 당진농공단지 내 이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양도양수

법인전환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분할합병

신규등록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주)건설뱅크 http://www.cl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FAX 02-567-3453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55-763-6678

**전기, 통신업 양도·양수**  
www.co114.co.kr  
● 분할, 합병, 법인 전환  
● 신규, 공개출자, 기업 진단  
**김실기(주)**  
TEL 02-581-8111  
FAX 02-581-0799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해성전력(대표자:박형순)은 주식회사 다진(대표자:박영우, 박형순)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항에 의거, 양도에 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양도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 서울-02907호  
2. 양도(예정)일 : 2017년 3월 23일  
3. 양도자 : 상 호 : 해성전력  
대 표 : 박형순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동 6길, 4 120호  
전 화 : 02)837-2574  
4. 양수자 : 상 호 : 주식회사 다진  
대 표 : 박영우, 박형순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금호로441길 21-1(월산동)  
전 화 : 062)374-0038  
2017. 3. 20  
양도자 : 해성전력 대표 박형순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동화전기(대표자:이실환)는 (주)건면이앤지(대표자:이실환)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항에 의거, 양도에 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양도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 부산-01471호  
2. 양도(예정)일 : 2017년 3월 27일  
3. 양도자 : 상 호 : 동화전기  
대 표 : 이실환  
주 소 : 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402호(감천동)  
전 화 : 051)329-7011  
4. 양수자 : 상 호 : (주)건면이앤지  
대 표 : 이실환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7  
전 화 : 054)654-9918  
2017. 3. 20  
양도자 : 동화전기 대표 이실환